

茶山の 春川紀行詩 研究

— 『穿牛紀行』을 중심으로 —

용 환 진 *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춘천의 역사 고증 |
| II. 여행 목적 및 여정 | V. 맺음말 |
| III. 여정별 형상화 양상 | |

<국문 초록>

茶山 丁若鏞(영조38, 1762-헌종2, 1836)은 두 번에 걸쳐 춘천을 여행한다. 1차 여행은 59세 때인 순조 20년(1820) 3월이고, 2차 여행은 3년 뒤인 62세 때 순조 23년(1823) 4월 15일에서 4월 25일까지이다. 1차 여행 때는 『穿牛紀行』이라는 시집을 남겼고, 2차 여행 때에는 『汕行日記』라는 여행 기록과 여행이 끝난 후 『汕水尋源記』라는 글을 남겼다.

이 중 『穿牛紀行』이라는 시집은 시로써 행로를 기록하여 7언절구 25수, 和杜詩 12수, 잡체시 10수가 실려 있다.

『汕行日記』에서는 여행 일자별로 날씨와 묵은 장소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여정별로 행적, 관찰, 감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1차 여행 때보다는 여행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직접 답사하여 심증을 굳힌 기록이 『汕水尋源記』이다. 다산은 洌水란 곧 한강이고 汕水는 북한강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

* 춘천여자고등학교 교사 / yonghj63@chol.com

었는데, 2차 여행에서 직접 답사를 통하여 汕水란 산골에서 나오는 춘천의 물과 狼川[화천]의 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산의 1차 여행시집인 『穿牛紀行』을 중심으로 여행 목적 및 여정, 여정별 형상화 양상, 춘천의 역사 고증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제 본고에서 고찰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일차(남일원에서 금허촌까지)에서는 출발 당일의 느낌과 산수 간에 노닐고 싶은 심정, 그리고 배에서 바라본 주변 풍광을 노래하고 있다.

제2일차(남이섬에서 마적산까지)에서는 남이섬을 지나며 南怡 장군에 대한 회고와 춘천이 가까워짐을 노래하였고, 마적산에서 묵으며 경전을 늘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제3일차(기락각에서 청평사까지)에서는 기락각을 통하여 청평사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묵으며, 李資玄을 회고하며 그의 고고한 인품을 드러내고 있다.

제4일차(우수주)에서는 지인이던 李檠의 종형제 李檠을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헤어짐을 아쉬워하였으며, 다산이 벼슬할 때 만났던 사람의 아들 윤중원을 만나 학문의 이치를 연구하기를 당부하며 떠났다.

아울러 춘천 맥국설이 잘못되었음을 고증하고 있다.

【주제어】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춘천기행시(春川紀行詩), 천우기행(穿牛紀行), 산행일기(山行日記), 산수심원기(山水尋源記)

I. 머리말

다산 정약용(영조38, 1762-헌종2, 1836)은 두 번에 걸쳐 춘천을 여행¹⁾

1) 다산의 생애를 修學期(1762-1782), 仕宦期(1783-1800), 流配期(1801-1818), 逍遙自適期(1819-1836)의 4기로 나눌 때 춘천 여행 시기는 제4기에 해당한다. (다산학술문화재단 <http://www.tasan.or.kr> 참조.)

다산은 59세 되던 순조 20년(경진, 1820) 3월 24일에 소내를 떠나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 춘천 일대를 유람하였고, 62세 때인 순조 23년(계미, 1823) 4월 15일에도 역시 마재 앞에서 배를 띄워 춘천에 와서 소양정에 오르고 곡운

한다. 1차 여행은 59세 때인 순조 20년(1820) 3월이고, 2차 여행²⁾은 3년 뒤인 62세 때 순조 23년(1823) 4월 15일에서 4월 25일까지이다. 1차 여행 때는 『穿牛紀行』이라는 시집을 남겼고, 2차 여행 때에는 『汕行日記』라는 여행 기록과 여행이 끝난 후 『汕水尋源記』라는 글을 남겼다.³⁾

이 중 『穿牛紀行』⁴⁾이라는 시집은 시로써 행로를 기록하여 7언절구 25수, 和杜詩 12수, 잡체시 10수가 실려 있다.

『汕行日記』⁵⁾에서는 여행 일자별로 날씨와 묵은 장소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여정별로 행적, 관찰, 감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1차 여행 때보다는 여행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직접 답사하여 심증을 굳힌 기록이 『汕水尋源記』⁶⁾이다. 다산은 洌水란 곧 한강이고 汕水는 북한강이라는 심증을

의 구곡을 돌아보았다. 한 번은 조카의 혼사에, 또 한 번은 손자의 혼사에 동행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다산의 춘천 여행은 평소의 바람을 실친한 것이었다. 다산은 자신이 세운 상고사 체계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두 가지 문제, 즉 洌水·汕水·濕水를 比定하는 문제와 춘천과 貌國·樂浪과의 관계를 밝히는 문제에 대하여, 실지 답사를 통해 定論을 마련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지니고 춘천을 찾았다. (심경호, 『다산과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6, pp.13-14.)

- 2) 丁若鏞, 『與猶堂全書』(『韓國文集叢刊』 281, 한국고전번역원.; 이하 동일하다.), p.490c, “越四年癸未夏。四月十五日。學淵領兒大林。逆女于春州。治小舟入峽。余又從焉。意在寒溪谷雲之間也。(『汕行日記』에 계미년(순조 23년, 1823) 여름 4월 15일에는 학연(1783-1859)이 아식 大林을 데리고 춘주에서 며느리를 맞으려고 작은 배를 마련하여 험곡으로 들어가기에 내가 또 따라 갔다. 한계와 곡운 사이에 뜻이 있어서였다.)”
- 3) 심경호 님의 『다산과 춘천』 부록에 여기 세 편의 글에 『아방강역고』 소재 춘천 기사를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두었는데, 본고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 4) 丁若鏞, 『與猶堂全書』, pp.153c-156b. 註에 “漢武帝遣彭吳穿牛首州。卽春川(한무제가 彭吳를 보내어 우수주를 뚫게 하였으니, 곧 춘천이다.)”라고 되어 있다.
서울대규장각소장 필사본 『與猶堂集』에는 『穿牛紀行卷』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 5) 丁若鏞, 『與猶堂全書』, p.490c.

가지고 있었는데, 2차 여행에서 직접 답사를 통하여 汕水란 산골에서 나오는 춘천의 물과 狼川[화천]의 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산의 1차 여행시집인 『穿牛紀行』을 중심으로 여행 목적 및 여정, 여정별 형상화 양상, 춘천의 역사 고증으로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겠다.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의 한국고전종합DB 『與猶堂全書』(『韓國文集叢刊』 281.)에서 다운받았고, 번역은 심경호님의 『茶山과 春川』을 따랐다.

II. 여행 목적 및 여정

다산의 1차 춘천 여행의 동기 및 목적은 「穿牛紀行序」에 잘 나타나 있다.

穿牛紀行序⁷⁾

庚辰三月廿四日。陪伯氏。領淳兒委禽之行。乘小艤溯汕水。將向春川。汕濕二水。會于龍津西。汕者山谷之水也。濕者原隰之水也。故以北派爲汕。南派爲濕。前年忠州之行。作五言以紀之。效錢起江行百絕句⁸⁾。七十五首而止。今作七言得二十五首以足之。又得雜體若干首。共爲一卷。

경진년 3월 24일에 만형님이 자제 순아(丁學淳)를 데리고 납채하러 가시는 길에 모시고서, 작은 배로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 춘천으로 향하게 되었다. 지난해 충주로 갈 때에 5언시를 지어 기록하여 당나라 시인 錢起의 江行百絕句를

6) 丁若鏞, 『與猶堂全書』, p.488b.

7) 丁若鏞, 『與猶堂全書』, p.153c.

8) 丁若鏞, 『與猶堂全書』, 「四月十五日 陪伯氏乘漁家小艤向忠州 效錢起江行絕句 (사월 십오일에 백씨를 모시고 고기잡이하는 집의 조그마한 배를 타고 충주로 향해 가면서 전기의 강행 절구시를 본받아 짓다.)」, p.149d. : 錢起(722-780)는 오언시로 유명했음.

본뜨려 하였으나 75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에 7언시 25수를 지어 보충하고, 다시 잡채시 몇 수를 지어 1권으로 합한다.

1820년 3월 24일 다산의 조카 곧 만형님인 丁若鉉(1751-1821)의 아들 丁學淳의 납채에 동행하기 위해 배를 타고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 춘천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 동기와 목적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표면적인 목적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목적은 머리말에서 언급한 洌水란 곧 한강이고 汕水는 북한강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심증을 직접 확인하는 데 의미를 두었던 같다.

그리고 1차 여행을 穿牛紀行이라 칭한 이유가 7언절구 25수 중에 언급되어 있다. 이제 7언절구 25수 중 스물 다섯 번째를 시를 보기로 하겠다.

此行大抵可名穿	이 여행은 뚫고 간다 이름하겠군
藕孔山河貫似錢	연근 같은 산하가 동전같이 꿰였으니.
二十五絃絃一曲	이십오현 현마다 한 곡씩 타서
權歌新續藥州篇	새로운 뱃노래로 예주편에 이으리.

1, 2구에서는 서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1차 여행을 穿牛紀行이라 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시의 註에 “杜詩云卽從巴峽穿巫峽(두보 시에 ‘즉시 파협으로부터 무협을 뚫고 가리라’라고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다.

3구에서 二十五絃은 7언절구 25수를 말하고, 4구의 藥州는 충주를 말한다. 이것은 지난 해 충주 일대를 여행하면서 지은 「四月十五日 陪伯氏 乘漁家小艇向忠州 效錢起江行絕句(사월 십오일에 백씨를 모시고 고기잡이하는 집의 조그마한 배를 타고 충주로 향해 가면서 전기의 강행 절구 시를 본받아 짓다)」라는 5언절구 75수를 이어 100수를 채우겠다는 의미이다.

한편 다산이 61세(순조 22, 1822) 때 지은 「自撰墓誌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경진년 봄에 배를 타고 汕水를 거슬러 올라가 춘천과 청평산 등지를 유람했다. 가을에는 다시 용문산에 가서 유람하는 등 산과 시냇가에 산보하면서 인생을 마치기로 했다.⁹⁾

위에서 보면 다산이 만년에 소요자적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일단을 엿볼 수 있다.

1차 여행에서는 서문에 출발 일자만 나와 있을 뿐 여행 날짜별 기록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한 여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한시를 통하여 대체적인 윤곽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인데, 이제 1차 여행의 여정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일>

- 南一原 출발 :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남일원(남양주시 화도면)을 출발하였다.
- 鈔羅潭 통과 : 사라담(남양주시 조안면)을 통과하였다.
- 高浪渡 통과 : 고랑도 위에 樂全堂 申翊聖(1588-1644) 공의 정자터가 있다고 했다.
- 壽谷 통과 :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權順長(1607-1677)을 기리는 旌表를 언급했다.
- 淸平 통과 : 청평 마을을 바라보며 지나갔다.
- 紫岑浦 - 靈源(迷源) 통과 : 자잠을 바라보며 영원을 지나갔다.
- 松漪村 통과 : 송의촌 뒤쪽 벼랑이 요새가 될 만하다고 했다.
- 鴈莊谷 통과 : 오장곡을 지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 笠川 - 柳家灣 : 배를 멈추고 휴식하였다.
- 八灘 통과 : 다음날 팔탄을 지나며 마을 儒者들의 한가로움을 묘사했다.
- 嘉陵(가평) 통과 : 가평의 아름다운 풍광과 석지산의 모습을 노래하였다.
- 金墟村(1박) : 금허촌에서 닷을 내리고 주막에서 묵었다.

9) 丁若鏞, 『與猶堂全書』, 「自撰墓誌銘(集中本)」(集中本), p.339d, “庚辰春。乘舟泝汕水。游春川淸平山。秋游龍門山。消搖山澤間以終焉。”

<제2일>

- 南怡苔 통과 : 남이 장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方阿兀 통과 : 온조가 회군할 때 큰 눈발이 내렸음을 상기했다.
- 鼎足灘 통과 : 어부를 만나 물고기를 사서 저녁찬으로 삼았음을 묘사하였다.
- 蘭山 - 懸燈峽(燈達峽) 통과 : 난산 일대의 황량함과 경기도를 뒤로하고 강원도로 접어들었음을 말하였다.
- 石門(문암) 통과 : 천혜의 요새를 지키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노래하였다.
- 新淵渡 : 성수(낭천) 협곡에 여울과 급류가 굉장하던 말 때문에 노정을 바꾸게 된 것을 아쉬워하였다.
- 昭陽渡 통과 : 소양나루에서 기색이 도읍지에 가깝다고 하였다.
- 馬跡山(2박) : 해가 저물어 마적산에 투숙하였다고 했다.

<제3일>

- 昭陽亭에 오름 : 소양정에서 옛 일을 회고하였다.
- 幾落閣 통과 : 험준한 지형과 춘천의 북문이 됨을 말하였다.
- 淸平寺 도착(3박) : 청평사에 묵으며 이자현 관련 고사를 회상하였다.

<제4일>

- 牛首州 도착(4박) : 춘천이 貂鄉이 아님을 노래하였다.
- 李榮 參奉 방문 : 청평사에서 나오는 길에 샘밭[泉田里]에 사는 지인 李榮을 만났다.
- 윤종원에게 증시 「贈尹鍾遠唯靑」을 주고, 춘천을 떠나며 지은 마지막 시 「出峽(협곡을 나오며)」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후의 귀로 일정은 생략되어 있다.

Ⅲ. 여정별 형상화 양상

1. 제1일차 : 남일원에서 금허촌까지

출발 당일 아침 일찍 남일원을 출발하며 읊은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早發南一原和同谷縣(아침 일찍 남일원을 출발하다. 두보의 동곡현에 화운함)」¹⁰⁾

不風且曳纜	바람 없으면 닻줄을 끌고
得風斯挂席	바람 얻으면 돛을 건다.
每懷煙波叟	매양 생각나네, 연파 늙은이
菖菴泛其宅	초수와 삼수에 집을 등실 떠있던 일.
東過水石邨	동쪽으로 수석촌 지나자니
尙想巖溪僻	외진 벽계가 생각난다.
哲人重神養	철인은 정신 양성을 중히 여겨
恥爲形所役	형체에 부림받음을 부끄러워하지.
國境縱編小	국토가 비록 좁다만은
意逸多可適	속세를 벗어날 뜻이면 갈 곳 많고 말고.
雪嶺舒經杖	설령은 아릅드리 줄기를 펴고
蓄藏奇泉石	갈무리 해두었지 기괴한 천석을.
戀結似焦渴	사모함 맺혀 바작바작 타듯하여
志欲沾一滴	한 방울이라도 적시길 원하였다.
阨窮無所得	궁액에 걸려 이룩한 것 없어도
尙能外欣感	세상근심과 기쁨을 벗어날 수 있었으나
惜此軀殼鈍	애석하다 이 몸이 노둔한 탓에
無由徧行跡	발자취를 두루 하지 못하다니
勉爲水中鳧	애써 물속의 오리가 되어
仰冀雲間翮	구름 속 황곡을 우러러 보노라.

10) 丁若鏞, 『與猶堂全書』, p.154c.

3구의 煙波叟는 당나라 사람 張志和(730?-810?)를 말하는데, 편집된 뒤 사면을 받고 돌아오자 뜻을 접고 초수와 삼수 사이에 은거하면서 문학과 그림으로 일생을 보냈다고 한다. 자호를 煙波釣徒라고 했기 때문에 煙波叟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¹¹⁾ 다산 자신도 세상을 피하여 은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7언절구 25수 중 첫 번째 시 3, 4구에 서도 그런 언급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槩溪를 지나가며 일찍이 삼연 김창흡(1653-1722)이 한 때 우거하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가 비록 좁지만 뜻만 있으면 은거할 곳은 많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폐족의 집안으로 정계 진출도 막히고 게다가 몸도 노둔하여 어찌할 수 없지만, 황곡의 고고한 뜻은 끝내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끝맺음하고 있다.

7언절구 25수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去歲黃驍水上人	지난 해 황효수를 다녀온 이 사람
綠驍水上又今春	녹효수 위에 떠가네 금년 봄에도
一生湖柳扁舟願	묘호(삼묘)를 편주로 떠다닐 숙원이었지
全把餘齡作逸民	여생은 오로지 일민으로 지내리라.

六十翁隨七十兄	예순 살 늙은이가 일흔 살 형을 따라
瓜皮容易溯江行	과피선으로 수월하게 강을 오른다.
年年此樂寧云少	해마다 이 즐거움 어찌 적으랴만
只是池塘草又生	연못가에 새 풀 돋자 그리움 더해라. ¹²⁾

첫 번째 시에서 黃驍는 여주의 옛 지명이고, 綠驍는 홍천의 옛 지명이다. 곧 황효수는 남한강을 말하고, 녹효수는 북한강을 말한다. 지난 해 만형 丁若鉉과 함께 충주 일대를 여행한 사실을 떠올리며 올해는 역시 만형과 함께 북한강을 거슬러 춘천을 여행하게 됨을 언급한 것이다.

11) 임종욱 편,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희, 2009.
 12) 丁若鏞, 『與猶堂全書』, 「[七言詩(二十五首)]」, p.153d.

“一生湖泖扁舟願”이란 倪元鎮 고사를 말한 것이다. 원진은 倪瓚 (1301-1374) 字이다. 元末의 화가로 산수화에 뛰어났다고 한다. 홀연히 재산을 친척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얼마 후 병란이 일어나서 부잣집들은 다 화를 입었지만, 예찬은 조각배로 震澤과 三泖 사이를 왕래하여 우환을 겪지 않았다 한다.

다산 자신도 예원진처럼 조각배로 떠다니며 여생을 일민으로 지내고 싶은 염원을 말하며 끝맺음하고 있다.

두 번째 시에서 과피선은 작은 배를 말한다. 나이 들어 형님과 함께 북한강을 거슬러 오르는 즐거움도 있지만, 문득 생각하니 비명에 간 둘째 형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짐을 말하고 있다. 다산의 둘째 형이자 지기였던 丁若鏞(1758-1816)은 1801년 신유박해 때 흑산도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는데, 이 때 문득 仲兄이 떠오른 것이다.¹³⁾

다음으로 笠川을 지나면서 읊은 시를 보기로 하겠다.

右過洪川次笠川	오른쪽에 홍천 지나 다음은 입천
柳家灣下乍停船	유가만 아래서 배를 멈춘다.
夕陽一片孤霞影	한 조각 외로운 구름은 석양에 물들었고
斜曳遙峯煖爐煙	먼 봉우리는 산 풀 태우는 연기.

笠川을 지나면서 쓴 것으로 7언절구 25수 중 열네 번째 시이다. 입천은 우리말로 ‘갯내’를 한자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곳은 홍천에서 흘러오는 강물이 춘천에서 흘러오는 강물과 합류하는 곳이다.

다음은 和杜詩 12수 중 笠川渡를 읊은 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笠川渡和白沙渡(입천도 두보의 백사도에 화운함)」¹⁴⁾

綠驍赴汕水 녹효수가 산수로 달려드는 곳

13) 다산은 둘째 형 정약전의 묘지명을 썼다. (丁若鏞, 『與猶堂全書』, 「先仲氏墓誌銘」, p.336d.)

14) 丁若鏞, 『與猶堂全書』, p.154c.

對立雙斷岸	끊어진 두 기슭이 마주해 섰다.
細流靜相過	가녀린 물 흐름이 조용히 지나는데
未足方江漢	큰 강에는 조금도 비할 게 아나.
視我門前水	내 집 앞 흐르는 물에 비하면
且爲半之半	반에 반일 뿐.
猶浮一葉船	그래도 조각배 하나 떠서는
樵蘇備呼喚	나무꾼과 서로 부르고 대답하는군.
夕靄澹青嶼	석양 받아 푸른 산이 담담하더니
餘霞復靡漫	남은 노을 또다시 자욱도 하다.
停舟類魚隊	배 멈추고 고기떼를 굽어보매
百慮淨蕭散	온갖 근심 흩어져 정신이 맑아진다.
桃源本自好	이 그대로 무릉도원이거니
何必須秦亂	하필 진의 난리가 있어야 할까.
無人議行藏	행장을 의논할 사람 없어
臨流獨永歎	강물에 임하여 홀로 탄식하노라.

笠川渡는 “방언으로 笱奈兀이라 하는데 홍천에서 흐르는 물과 춘천에서 흐르는 물이 합류하는 곳(方言笱奈兀。卽洪川水春川水合流處)”이라고 註가 달려 있다.

시의 전반부에서는 비록 두 강물이 합류하는 곳이지만, 자신의 고향 집 앞을 흐르는 강물에 비하면 반에 반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였다. 고향 집 앞을 흐르는 강은 “산수와 습수가 마현 동쪽에서 모인다(汕濕二水會于馬峴東)”라고 註가 달려 있다. 지금의 양수리 지역을 말한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문득 배를 멈추고 강물 속의 고기떼를 살펴보니 세상의 근심 걱정이 사라져 정신이 상쾌해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릉도원이 바로 이 곳임을 떠올리는데, 현실의 다산 자신은 출처행장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노라고 탄식하며 끝맺음하고 있다.

팔탄을 지나며 마을 儒者들의 한가로움을 노래한 시를 보기로 하겠다.

身赤條條首戴冠 발가숭이 몸에 줄줄이 유관은 없고

水中撈網坐江干 어망을 걸어두고 물가에들 앉았다.
 峽村儒者渾如此 협곡 마을 유학자란 모두가 이렇거늘
 猶自豪雄號八灘 팔탄이라 으스대 야단스럽다.

1, 2구에서는 몸에 옷은 벗었는데 머리에는 갓을 쓴 채로 강가에서 천렵을 즐기고 있는 모양이다.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시골 儒者들의 한가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2. 제2일차 : 남이섬에서 마적산까지

芳洲細艸水沈根 풀섬 여린 풀들이 뿌리를 담근 곳
 生長南怡尚有村 남이 장군 생장지에 옛 마을은 그대로라.
 岸上寂寥千樹栗 기슭에 적적한 일천 그루 밤나무들
 如今還作李家園 지금은 모두 이가네 동산 되었다지.

남이섬을 지나며 南怡(1441-1468) 장군에 관한 일을 회상하고 있다. 남이섬은 옛날 그대로인데, 세월은 바뀌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

南怡苦下方阿兀 남이섬 아래 방아골은
 譯以文之白谷云 한문으로 번역하면 구곡이라.
 溫祚回軍噫此地 그 옛날 온조가 여기서 회군할 때
 一天大雪想紛紛 온 하늘에 큰 눈발이 분분했다지.

南怡苦 아래 註하기를 “우리말에 도서를 섬이라 한다. 『대명일통지』에 보임(方言島嶼曰苦。見大明一統志)”이라고 했다. 남이섬 다음으로 방아골을 지나면서 方阿兀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白谷이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백제의 온조왕이 우두산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구곡에 이르러 대설을 만나 돌아간 사실을 회상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蘭山一面尙天荒 난산 일대는 아직도 황량하여
 閣道飛空十里長 십 리 벼랑길이 하늘 높게 뻗었다.
 龍瀨東頭重回首 작탄 동쪽서 고개를 돌려보니
 京畿山色已迷茫 경기도 산빛이 이미 아름답하구나.

난산 일대의 주변 풍광을 묘사하고 있다. 난산은 예전에 懸燈이라고 했는데, 燈達이라고 풀이하고 있다.(懸燈者 燈達也 方言 懸曰達也) 현재의 삼악산 입구쯤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느덧 경기도를 뒤로 하고 춘천이 가까워짐을 말하고 있다.

아래 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懸燈峽和龍門閣(현등협, 두보의 용문각에 화운함)」¹⁵⁾

懸燈古蘭山 현등은 곧 옛날의 난산
 絕壁戴焦土 절벽이 초토를 이고 있구나.
 兩厓欲相撞 양쪽 벼랑은 서로 부딪힐 듯하고
 東峽昏萬古 옥죄인 협곡은 만고에 컴컴하다.
 直愁礙人肩 사람의 어깨를 죄일까 근심되어라
 江流通一縷 강 흐름이 실날 하나로 통하여서.
 高葉搖天風 이파리 높이 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崩湍掀地柱 여울 무너져 땅 기둥을 뒤흔드니
 攢峯蝕太陽 모아선 봉우리는 태양을 침식하고
 淸晝騰霾雨 맑은 대낮에도 흙비가 튀어 오른다.
 決知陷鬼門 결단코 알리, 귀문이 함락되면
 歸路將焉取 귀로를 어디로 취할지를.
 山脊稍彎環 산등성이가 완만히 돌아나가
 水勢開夾庑 물길이 협유 활처럼 열렸다.
 漸聞雞犬聲 차츰 개와 닭소리 들리고
 籬落遠可數 멀리 한 두 집을 헤아리겠군.

15) 丁若鏞, 『與猶堂全書』, p.154c.

시의 전반부에서 현등은 곧 옛날의 난산임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벼랑으로 이루어진 험준한 지형임을 말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앞에서 말한 험준한 산등성이를 돌아나가니, 저 멀리 인가가 보이고 계다가 개 짖는 소리와 닭 울음 소리까지도 들리는 것을 들어 춘천이 가까워졌음을 말하고 있다.

7언절구 25수 중 스물네 번째 시에서는 험난한 지형을 읊고 있다.

一重山過一重山	한 겹 산을 지나 또 한 겹 산
垂柳灣連臥柳灣	수양버들 기슭 다음엔 누운 버들 기슭
燈達峽前催挂席	등달협 앞에서 돛 걸라 재촉하는데
兩厓相拍碧孱顏	높이 선 푸른 벼랑은 서로 칠 기세.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과 강가의 버들 때마침 바람 불어 돛 걸라 재촉하는 상황,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형세를 노래하고 있다.

이제 삼악산을 바라보며 쓴 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三嶽和五齋(삼악. 두보의 오반에 화운함)」¹⁶⁾

崔崔席破嶺	까마득한 석파령은
是蓋三嶽餘	바로 삼악의 자투리.
雖無娟妙峯	고운 봉우리 없어도
捍禦頗不疎	방어에는 제법 성글지 않다.
王調與崔理	왕조와 죄리는
浪作釜中魚	가마솥 안 생선 되고
漢吏空越海	한나라 관리는 바다 건너 왔다만
鬱鬱安能居	근심 많아 어찌 거주했나.
漠漠清流關	맑은 물은 막막히 관문을 둘러가고
草木嫩初舒	초목의 여린 싹 이제 막 뻗어난다.

16) 丁若鏞, 『與猶堂全書』, p.154c.

亭郵杳相望	역사가 아득히 이었으니
榛莽誰能除	우거진 잡목을 그 누가 제거하라.
古城餘斷堞	옛 성은 끊어진 성가퀴만 남고
破寺寄空墟	깨어진 절은 빈 터에 붙어 있다.
因知人世間	이제야 알겠네, 세상 일이란
處處委蘼廬	곳곳마다 객사에 몸 맡길 뿐임을.

시의 전반부에서는 王調와 崔理에 대한 고사를 떠올리고 있다. 즉 註에 “王調, 崔理. 皆漢光武時樂浪土酋. 王調爲太守王遵所殺. 崔理爲句麗所侵殺. 女子出降. (왕조와 최리는 모두 한 광무제(漢光武帝) 때 낙랑(樂浪)의 토추(土酋)인데, 왕조는 태수(太守) 왕준(王遵)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최리는 고구려로부터 침살(侵殺)되었으며 여자들은 나가서 항복하였다.)”고 되어 있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저 멀리 강물은 아득히 흘러가고, 산에는 초목이 짙을 틔우고 있는데 옛 성터와 폐사가 되어버린 빈 절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한갓 나그네일 뿐임을 말하고 있다. 註에 “三嶽東峰之下. 有古城遺址. 城下有古寺. 樂浪古跡. 今不可考. (삼악산(三嶽山)의 동쪽 봉우리 밑에 옛 성(城)의 유지(遺址)가 있고, 그 성 아래에는 옛 절이 있으나, 낙랑의 고적(古跡)은 지금 상고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현재도 삼악산에 올라가면 옛 성터를 찾아볼 수 있다.

「馬跡山和鹿頭山(마적산. 두보의 녹두산에 화운함)」¹⁷⁾

暮投馬跡山	저물녘에 마적산에 투숙하여
酒醒喉更渴	술 깨자 목이 더욱 타는구나.
園亭逐風涼	동산 정자에서 서늘한 바람 맞으니
卽此已披豁	맏혔던 가슴이 시원해 온다.
四鄰競勞問	사방에서 다투어 문안들 오고
少長禮弗越	소년이나 어른이나 예절이 바르다.

17) 丁若鏞, 『與猶堂全書』, p.154c.

長松蔭崇阿	장송은 아스라이 덮었고
嘉穀連平闊	기름진 곡식은 질편하게 널렸다.
緬懷司馬徽	저 옛날 사마휘가 생각한다.
水鑑淸映發	물거울에 맑은 광휘 발하여서.
博學復精研	널리 배우고 정밀히 연구해서
疑殆鮮所闕	의문점과 위태한 점 안 남겼더니.
踽踽宇縣內	고독하게도 천하 속에
獨成支離兀	나 홀로 기형인이 되었다.
履茲生長村	나고 자란 마을을 이제 밟았으니
憶念柏下骨	송백 우거진 선영 아래 뼈를 묻으리.
惜無臥龍冠	애석히도 와룡관 없어
隱此乳虎窟	이 호랑이 굴에 은둔하리라.
大器多晚成	큰 그릇은 대부분 늦게 이루어지고
賢聖罕早達	현성은 일찍 달성되지 않는 법.
魯叟恨苗秀	노수(공자)는 싹 못 자람을 한탄하고
五十希延活	오십 나이까지 더 살기를 바램하였지.
遺經尙自隨	옛 경전을 항상 지녀 가져서
每照空樑月	빈 기둥의 달에 번번이 비취 본다.

마적산은 현재 춘천시 신북읍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 610m이다. 신북읍에서 1박하면서 지은 시이다. 해질 무렵 마적산에 투숙하여 사방에서 문안 인사 오는 모습을 보고, 어린이나 어른이나 예절이 바르다고 말하고 있다. 주변에 장송이 뒤덮여 있고 기름진 곡식이 사방에 널렸다고 했다. 다음으로 소양강 맑은 물을 보고 수경이라 불릴 만큼 사람을 잘 알아본 사마휘를 연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산 자신이 평생 널리 배우고 정밀히 연구하여 의문점과 위태한 점 남기지 않았는데, 고독하게도 천하에 홀로 기형인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다행히 세상의 그물에서 벗어나 이제 고향땅도 밟고 선영에 뼈도 묻을 수 있게 됐으나 애석하게도 제갈량과 같은 학식과 덕행이 없어서 은둔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성현의 경지는 일찍 도달하

지 않는 법이라. 공자가 일찍 죽은 안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주역 공부 더 하기를 바랐듯이, 다산 자신도 경전을 늘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제3일차 : 기락각에서 청평사까지

청평산으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 협곡으로 되어 있던 기락각에 대하여 읊은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幾落閣和石櫃閣(기락각. 두보의 석계각에 화운함)」¹⁸⁾

絕峽破積陰	끊어진 협곡은 쌓인 녹음을 깨고
晨霞照江赤	아침 노을에 강이 붉게 물들었다.
高臨不測淵	높이 임하여 심연을 알 수 없고
仰蒙將落石	우러러 보면 돌이 굴러 떨어질 듯.
名都此北門	이름난 도회지(춘천)에 여기가 북문
嚴扃鎖鐵壁	엄중한 빗장으로 쇠철벽을 닫았다.
輕舟漫自棄	빠른 배를 훌쩍 버리고선
躡屨隨山客	미투리 신고 산사람을 따른다.
魄慄不敢前	혼백 떨려 나아가질 못하겠군
新泥印虎跡	갓 젖은 진흙에 범 발자국 찍혀 있어.
水石本閒事	수석을 즐길은 본시가 한가한 일
顧爲誰所迫	누구에게 꺾박받아 그런 것이라.
性好那可節	기호를 어떻게 절제하겠나
麋塵悅林澤	사슴은 수풀과 못을 좋아하는 법.
賢哉李資玄	어질도다 이자현은
深山自此適	이래서 찾았구나 깊은 산을.

시의 전반부에서는 기락각의 지형이 협곡이라 험한 곳이라고 말하고

18) 丁若鏞, 『與猶堂全書』, p.154c.

있다. 올려다보면 마치 위에서 돌이라도 굴러 떨어질 것 같다고 한다. 더 이상 배로는 갈 수 없어 걸어서 험한 길을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험한 길을 지나 청평사에 은거하고 있는 이자현을 떠올리고 있다. 이자현이 사슴과 수풀을 좋아하기에 깊은 산에 은거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이자현의 인품이 고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청평사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쓴 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夜宿清平寺和東坡蟠龍寺。(밤에 청평사에 묵다. 소동파의 반룡사에 화운함) 19)

鑽石東經幾落遷	바윗새 뚫고 동쪽으로 기락천을 지나
捫蘿北入清平谷	넝쿨 잡고 북쪽으로 청평골에 들어가니
清平居士眞樂公	청평거사 진락공 이름이
史冊流徽光煜煜	역사책에 찬란하게 전한다.
春撞玉瀑垂四層	우르릉 옥색 폭포가 네 층에 걸렸고
屈折雲溪縈九曲	구불구불 구름내 아홉 구비 서려 있다.
石枰經緯方似罫	돌판의 가로세로는 패선처럼 반듯하고
鐵杖杈樞高於竹	쇠지팡이 삐죽하게 대죽보다 높이섰다.
懸知椒塗水作山	향초 바른 후궁이 얼음산 될 줄 알았고
逆觀蕭牆風滅燭	소장에 바람 불어 촛불 꺼지려니 예상했다.
解七貴綬穿麻衣	칠계 인끈을 풀고 삼베옷 꿰어 입고
吐五侯鯖茹香藪	오후정 음식 뱉고 나물을 먹었다.
已聞宮裏烏啄餅	궁궐서 독 든 떡을 까마귀가 먹었다 들었거니
何如山中魚作粥	산속에서 부죽 만든 일과 어떠하였나.
三角當時帶水白	삼각산 있을 당시 대수는 희었고
九松至今繁陰綠	그가 심은 아홉 솔이 지금까지 짙푸르다.
惜此逃禪少林嵩	애석하다 이 사람 소림산에서 선에 숨고
恨不談易青城蜀	촉재마냥 주역을 논하지 않았다니.
微瑕未足掩白珩	작은 허물로 흰 옥걸을 가릴 수는 없지
壤蟲要難比黃鵠	땅벌레를 고니새에 비길 수 없으리니.

19) 丁若鏞, 『與猶堂全書』, p.155d.

우선 청평사에 이르는 길이 매우 험난함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평거사로 불렸던 李資玄(1061-1125)을 언급하고 있다. 산이 깊어 구비마다 안개가 서려 있고, 청평사에 이르는 길에 보았던 폭포를 말하고 있다. 돌판과 이자현이 사용하던 쇠지팡이에 대한 언급도 보인다. 또 이자겸이 욕심이 과하여 도리어 화가 닥칠 것을 예상했고, 좋은 옷과 고급 음식 대신 삼베옷 걸치고 나물로 배를 채웠으며, 이자겸이 왕을 독살하기 위해 독을 넣은 떡을 까마귀가 먹어 발각된 일과 산속에서 푸성귀로 죽을 만든 일을 대비시켜 이자현의 고고한 인품을 드러내고 있다. 이자현이 임진강을 건너면서 했던 맹세를 지켰고, 그가 심었다는 아홉 그루의 소나무는 아직껏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자현이 선도를 한 것이 애석하지만 그런 작은 허물 때문에 그의 고고한 인품이 폄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4. 제4일차 : 우수주 - 지인과의 만남

다산은 1차 춘천 여행에서 지인 두 사람을 만나고 증시를 지어 남기게 된다. 한 사람은 李燦(1754-1786)의 종형제였던 李檠(1749-1833)이고, 또 한 사람은 尹鍾遠이다.

먼저 李檠에게 준 시를 보기로 하겠다.

「贈李檠參奉丈(이목 참봉에게 드림)」²⁰⁾

山海分携兩老儒	아득히 먼 곳으로 헤어졌던 두 늙은이
相逢此日劇歡娛	이 날 상봉하여 너무도 즐거웠다.
惜乎已落張蒼齒	애석해라 싱싱하던 이빨이 다 빠지다니
恨不從游綺皓鬚	한스럽다 상산노인과 노닐지 못해서.
籬下石田催晚種	울타리 아래 돌밭은 씨 뿌리길 재촉하고
門前水岸漲春蕪	문 앞 강기슭에는 봄풀이 넘쳐난다.

20) 丁若鏞, 『與猶堂全書』, p.156b.

移居徑欲分仙洞 선동에 이사와 구역을 나눠 살아
與作朱陳嫁娶圖 주진촌 가취도를 함께 이뤄봤으면.

수련에서는 서로 그리운 사람끼리 헤어져 있는 것도 괴로움의 하나라 했던가. 다산이 18년간 유배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참으로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 너무도 즐거웠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는 다 빠지고 머리는 어느새 호호백발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그저 애석하기도 하고 한스러울 뿐이라고. 시절은 또 봄이 되어 비록 돌밭이지만 씨 뿌리고 가꾸어야 할 농사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朱陳嫁娶圖를 예로 거론한 것은 “주씨 진씨는 당 나라 때 徐州 豐縣의 한 마을에 대대로 혼인을 하며 함께 살았던 두 종족으로, 그들이 사는 마을을 朱陳村이라 하였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좋은 땅으로 이사 와서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세월을 이어봤으면 하는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²¹⁾

다음으로 윤종원에게 준 시를 보기로 하겠다.

「贈尹(鍾遠)唯青(윤종원에게 줌)」²²⁾

見爾潸然欲酸鼻 너를 보니 눈물이 왈카 나 코끝이 찡하다

21) 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 해에 다시 이참봉에게 시를 썼는데, 다음과 같다. (丁若鏞, 『與猶堂全書』, p.126a,

「簡寄春川李參奉(榮)(춘천의 이목 참봉에게 서간을 겸하여 부침)
苦憶君時視碧江 그대가 그리울 때면 푸른 강물을 바라봅니다.
山扉流送到書窓 저 강물은 산집으로 흘러가 서실 창에 이르러니.
喉猶痛飲杯三百 여전히 탁주 삼백 배를 통음하시겠지만
鬢且新懸玉一雙 귀밑터럭은 백옥 한 쌍을 매단 격이시겠쇼.
鶴邱從游誰薦綺 동궁의 수학에 기리게를 추천할 자 있을른지
鹿門耕種每思龐 녹문산에 밭갈던 방덕공을 생각합니다.
文巖草木知生色 문암의 초목도 생생의 봄빛을 알겠지요.
地主南來惠此邦 제가 있는 남쪽으로 왕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2) 丁若鏞, 『與猶堂全書』, p.156b.

念爾考顏如玉粹	네 부친의 옥 같던 얼굴이 생각나기에.
盛年憶在明禮坊	생각하니 한창 때 명례방에 있던 시절
苦心就我談文字	열심히 내게 와 글을 논하였지.
傳餐小奴字朝陽	찬 내오던 어린 종은 조양이란 이름
靑袂盤盤致午餽	옷소반에 푸른 보 씨워 점심을 내왔었다.
瓊詞譎句動驚人	아름다운 글귀가 사람을 놀래켜
樊翁聞之稱異瑞	번옹도 기이한 조짐이라 칭찬했던 너.
蘭蕙彫零吁可惜	향그런 풀이 시들다니 아아 너무 슬프구나
萍梗漂流亦遠謫	부평같이 표류한 나는, 멀리 귀양을 살았단다.
覆巢猶完孔融兒	집안이 엮어져도 공융 자식은 온전한 법
蜀地空過揚雄宅	촉땅에서 공연히 양웅 댁을 들렀구나.
仇池小有此洞天	구지에 이런 작은 동천이 있어서
我來爾存嗟機緣	나 여기 오고 그대 여기 살아 기연을 이룬 것을.
鳳穴奇毛色殊衆	봉황 굴의 기특한 털빛은 무리에서 뛰어난데
龍井小觀頗可憐	우물 안 개구리는 본 것 적어 부끄럽다.
楚甥羸弱承秦贅	파리한 초땅 조카가 진땅 군더더기 맞아
石田茅屋蕭蕭然	돌밭에 초가집이 쓸쓸도 하다.
幸有良士常鄰近	부디 어진 선비를 가까이 해서
探蹟研幾毋自捐	학문 이치 연구하여 자포자기 말기를.

다산이 서울의 명례방에서 생활할 때 여러 번 찾아와 글을 논하기도 했던 윤종원의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왈칵 나 코끝이 찡하다고 했다. 이 때 찬 내오던 어린 종의 조양이란 이름까지 그리고 옷소반에 푸른 보자기 씨워 점심을 내오던 일까지 기억해 낸다. 함께 했던 번옹 蔡濟恭(1720-1799)도 칭찬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윤종원이란 사람이다. 이렇게 촉땅 받던 인재가 먼 곳에 와서 꿈을 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도 슬프다고 했다. 하지만 다산 자신도 유배생활을 했기에 평탄한 삶은 아니었고 마치 부평초와 같은 생활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집안이 기울어도 자식은 잘 살아있어 춘천에서 윤종원의 집을 찾았음을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됐음을 언급하고 있다. 재주는 뛰어난데 구석진 곳에 살아 본 것이 적어 자못 가련할 뿐이고, 이런 상황에서 돌밭에 초가

집조차 쓸쓸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어진 선비를 가까이 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학문의 이치를 연구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제 1차 여행을 마치고 춘천을 벗어나면서 쓴 시를 보기로 하겠다.

「出峽」²³⁾

出峽乾坤大	협곡을 나오자 하늘과 땅 웅대하고
維舟草木停	배 비껴어 매니 초목이 고요하다.
遠峯松點黑	먼 봉우리에는 솔방울이 검었고
晴渚鷺絲青	맑은 물가에는 인동초 잎이 푸르다.
水上來還去	물위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다니
人間醉不醒	속세에 취해 깨지를 못하여서.
傷時竟何補	시절을 슬피해 어쩔 것인가
頭白且窮經	머리 희도록 경전이나 파련다.

이 「出峽」은 穿牛紀行의 마지막에 실려 있는 시이다. 춘천 여행을 마치고 골짜기를 빠져나가자 하늘과 땅이 웅대함을 말하고 있다. 저 멀리 산봉우리에는 솔방울이 검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물가에는 인동초 잎만 푸르다. 경련에서는 이번 여행에서 물위를 떠다니며 일민이 되고자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다시 속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아쉬워한 표현이다. 끝으로 아무리 아쉬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니 경전 연구에 몰두하겠다고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IV. 춘천의 역사 고증

다산은 춘천을 중국의 成都에 비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다산이 직접 와서 목격한 춘천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을 다

23) 丁若鏞, 『與猶堂全書』, p.156b.

산은 매우 안타까워하며 현재는 그렇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汕行日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 생각에 춘천은 우리나라의 성도라 할 수 있다. 제갈공명이 촉 땅을 근거지로 삼아 한실의 부흥을 꾀하였고, 당나라 명황이 안록산의 난을 피하여 촉으로 행차하여 위난을 면한 일이 있다. 춘천도 바로 위난의 때에 국가를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심하게 패망하였으니 아아, 애석하도다. 도망한 아전과 백성들을 불러 위로하여 안주시키는 데는 6, 7년이 아니면 안되거늘, 지금 도호부사를 아침에 제수하여서는 저녁에 뒤바꾸니 아아, 장차 어쩔 것인가?²⁴⁾

이제 다산이 우두벌에 대하여 읊은 시를 보기로 하겠다.

『牛首州和成都府(우수주. 두보의 성도부에 화운함)』²⁵⁾

命僕理歸楫	갈 배를 살피고 종복에게 이르니
水風吹衣裳	강바람 불어 옷이 휘휘 나부낀다.
暮宿牛首村	저녁에 우수촌에 투숙하여
顧瞻詳四方	사방을 자세히 보고 싶었다.
嗟茲樂浪城	아아 낙랑성이 어찌다가
冒名云貂鄉	맥향이란 오명을 입게 되었다.
木皮不能寸	나무껍질은 한 치도 안되고
五穀連阡長	오곡은 논두렁 따라 자라며
地暄發生早	온난한 지역이라 발생이 빨라
首夏葉已蒼	초여름에 벌써 나뭇잎 무성하고
鳴鳩樹樹喧	나무마다 산비둘기 재잘거리고
黃鳥弄柔簧	빼꼭새는 고운 노래 부르는 걸.
南韓昔巡撫	옛날 남한에 순무 왔을 때
漢使川無梁	한의 사신은 강 건널 다리 없었지.

24) 丁若鏞, 『與猶堂全書』, 『汕行日記』, p.490c, “余惟春川者。吾東之成都也。孔明據蜀以圖興復。明皇幸蜀以免危急。春川亦國家必保之地。今敗亡如此。嗚呼惜哉。招來安集。非六七年不能。今且朝除而夕遷。噫將奈何。”

25) 丁若鏞, 『與猶堂全書』, p.154c.

勒石久埋沒	길 통한 공로비가 땅에 묻혀서
薰聲竟微茫	끝내 그 공덕을 상고할 길 없구나.
小水梁若濺	작은 개울이 정말 구정물 같다만
其名本無光	예맥이란 이름은 때깔이 없다.
國史有誰讀	우리 역사를 누가 읽으랴
登覽深悲傷	올라 바라보니 슬픔만 깊어진다.

“自清平山歸路。始宿牛首村。初日暫過之。(청평산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우수촌에 묵었다. 갈 때는 얼른 지나쳤었다.)”라는 註가 달려 있다. 춘천의 신라 때 이름이 우수주였다.

시의 전반부에서 춘천은 낙랑 지역에 속했는데, 이것이 잘못 전해져 맥국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우두 지역의 곡물이 자라는 것을 들어 『맹자』의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음을 들고 있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우두산에 한의 사신 彭吳의 통도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상고할 수 없음을 한탄하고, 끝으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음을 말하며 마무리 하고 있다.

다산은 춘천의 맥국설을 부정하였다. 2차 춘천 여행 기록인 『汕行日記』에서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은 맥국이 아니다. 貉이란 글자는 夷狄이나 戎蠻과 같은 글자이다. 정동방에 있는 것을 夷라 하고 정북방에 있는 것을 狄이라 하며 동북방에 있는 것을 貉이라 하고 동남방에 있는 것을 蠻이라 한다. 周禮에 설이 보인다. 그런데 세상에 夷國이란 없고 또 狄國도 없거늘 어찌서 유독 맥국만 있을 것인가? 맥에는 여러 종족이 있어서, 濊貉·梁貉·小水貉·旬麗貉 등 그 구별이 일정치 않다. 마치 島夷·萊夷나 赤狄·白狄의 부류가 구별이 일정치 않은 것과 같다. 따라서 맥을 두고 나라 이름을 칭할 수 없다. 맥족은 모두 중국의 동북방에 있다. 그런데 춘천은 중국의 정동방에 있으므로, 춘천을 두고 맥이라 이름 할 수 없다. 다만 한·위 무렵에 낙랑이 남으로 춘천에 이사 와서 혹은 한의 관리가 와서 지키기도 하고 혹은 토착민의 주장이 빼앗아 점거하기도 하였다. 낙랑의 근본은 평양에 있었다. 평양이 쇠망하여 고구려에게 함락되자 고구려의 종족은

본래 맥족과 혼합되어 있었으므로, 백제와 남한 사람들이 춘천 지역의 부족을 낙랑과 한대 아울러서 맥인이라 불렀다. 춘천 지역민이 평양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었다. 평양은 당시 구려맥이었다. 가탐의 『군국지』와 김부식의 『백제사』(삼국사기)는 이 점을 변별하지 못하고 잘못해서 낙랑의 사람이었던 춘천지역민을 맥인이라 하였다. 그로부터 춘천 지역민들이 지금까지도 모함을 입고 있어 벗어날 길이 없다. 하지만 『맹자』에 “맥 땅에는 곡물이 나지 않고 오직 기장만 난다.”고 하였는데, 춘천이 과연 그러한가? 『한서』, 晁錯傳 에는 “호맥의 땅에는 나무껍질이 세 치나 되고 얼음 두께가 여섯 자나 된다.”고 하였는데, 춘천이 과연 그러한가? 강릉이 濊가 아닌 점도 이와 같다. 예인은 남쪽의 가섭원으로 이사하였는데 가섭원은 하서 지역이므로, 사실 강릉은 예가 아니다.²⁶⁾

위에서 보면 다산은 춘천의 맥국설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부식도 『삼국사기』에서 변별하지 못하여 잘못 서술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춘천을 낙랑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다산은 2차에 걸쳐 춘천 여행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다산의 1차 춘천 여행인 穿牛紀行을 여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26) 丁若鏞, 『與猶堂全書』, 「汕行日記」, p.490c, “貂辨云春川。非貂國也。貂之爲字。與夷狄戎蠻等。正東曰夷。正北曰狄。東北曰貂。東南曰閩。見周禮。世無夷國。亦無狄國。何獨有貂國哉。貂有多種。濊貂梁貂小水貂句驪貂。其別不一。如烏夷萊夷赤狄白狄。貂非可名國也。總在中國之東北。春川在正東。不可以名貂也。特以漢魏之際。樂浪南徙于春川。或漢吏來守。或土酋竊據。而樂浪之本。在於平壤。平壤之衰。陷於句麗。句麗之種。本與貂混。故百濟南韓之人。竝指樂浪謂之貂人。爲其本自平壤來。平壤時爲句麗貂也。賈耽郡國志。金富軾百濟史。曾是不辨。誤以樂浪爲貂人。而至今蒙冒。莫之知脫。然孟子曰貂五穀不生。唯黍生之。春川然乎哉。漢書鼂錯傳云胡貂之地。木皮三寸。氷厚六尺。春川然乎哉。江陵非濊。亦猶是也。濊人南徙迦葉原。迦葉原者。河西良也。江陵非濊也。”

제1일차(남일원에서 금허촌까지)에서는 출발 당일의 느낌과 산수간에 노닐고 싶은 심정, 그리고 배에서 바라본 주변 풍광을 노래하고 있다.

제2일차(남이섬에서 마적산까지)에서는 남이섬을 지나며 南怡 장군에 대한 회고와 춘천이 가까워짐을 노래하였고, 마적산에서 묵으며 경전을 늘 가까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제3일차(기락각에서 청평사까지)에서는 기락각을 통하여 청평사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묵으며, 李資玄을 회고하며 그의 고고한 인품을 드러내고 있다.

제4일차(우수주)에서는 지인이던 李槃의 종형제 李檠을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헤어짐을 아쉬워하였으며, 다산이 벼슬할 때 만났던 사람의 아들 윤종원을 만나 학문의 이치를 연구하기를 당부하며 떠났다.

아울러 춘천 맥국설이 잘못되었음을 고증하고 있다.

<參考 文獻>

- 丁若鏞, 『與猶堂全書』, 『韓國文集叢刊』 28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정약용, 『여유당집』 七, 서울대규장각소장, 필사본.
다산학술문화재단 <http://www.tasan.or.kr>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다산시문집』 3, 솔, 1996.
- 김상홍, 『다산 정약용 문학 연구』, 단국대출판부, 1985.
박석무, 『다산산문선』, 창작과비평사, 1985.
——, 『다산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2003.
송재소, 『다산시 연구-俟菴年譜 完역』, 1986.
심경호, 『다산과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1996.
임종욱 편, 『한국역대인명사전』, 이회, 2009.
임종욱 편,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 2009.
박석무·정해림 편역주, 『茶山詩精選』 상·하, 현대실학사,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poem of visiting Chuncheon by Dasan Jeong, Yakyong
- Focused on the visit of Cheonwoo(穿牛紀行) / Yong Hwan Jin*

Dasan Jeong Yakyong, who lived from 1762 to 1836, visited Chuncheon twice. This research focused on his first visit, which is called Cheonwoo. Four points were introduced in this research. You'll see what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On the first day, from Nameelwon to Keumheochon, he expressed his excitement about his trip. He described how much he liked to take a rest in the mountain and river as well as his amusement on the beautiful nature from his boat.

On the second day, from island Namee to Mt. Majok, he appreciated his close arrival in Chunchon and reflected general Namee. He also stayed on Mt. Majok and decided to read more old text.

On the third day, from Kirackkak to Cheongpyoungsa, he stayed one night at Kirackkak after arriving Cheongpyoungsa. He reflected Yi, Jahyoun (李資玄) and expressed his good character.

On the fourth day, in Woosoojoo, he missed his company Yi, Byouk(李燦). He met Yi's brother Yi, Mok(李槩). He left this place asking to research the philosophy of academic study to Youn, Jong won. In addition, he proved the theory of Chuncheon Mackook was wrong.

【Key words】 Dasan Jeong, Yakyong(茶山 丁若鏞), Poem for visiting Chuncheon, Visiting Cheonwoo(穿牛紀行), Sanhangilgi(汕行日記), Sansusimweongi(汕水尋源記)

투고일 : 5월 4일, 심사일 : 5월 23일, 게재확정일 : 6월 7일
--

* Chuncheon Girls' High School, Teacher / yonghj63@chol.com